

'꿈사다리 TV'로 대입 수시 정보 제공

전북도교육청, 학생 맞춤형 진로 진학 정보 동영상 콘텐츠 제공... 교사 2명과 학생 1명 참여 토크쇼 형태로 제작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정보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진학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꿈사다리 TV'를 운영,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대입 진학 정보를 효과적으로 안내해 왔다.

'꿈사다리 TV'는 도내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입시제도의 변화 및 전형별 대입 정보와 같은 핵심 진학 정보를 동영상 강의 형태로 제공하는 진학 정보 지원 콘텐츠다.

강사로는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현직 고등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전북 대입진학지도지원단 연수지원팀이 참여, 대입전형별 시의성 있는 진학관련 주제를 선정해 시기별로 제작한다. 특히 학생들이 집중력을 갖고 시청할 수 있도록 짧은 동영상으로 핵심 내용을 안내하며, 지난 4월부터 매달 새로운 주제의 동영상을 제공했다.

이번에 소개할 대입 수시 진학 정보 동영상은 교사 2명과 학생 1명이 토크쇼 형태로 제작 예정이다. 8월 초 전북진로진학센터 홈페이지

꿈사다리 TV (<http://jbc.go.kr/jinro>)와 전북교육청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난 4월 '꿈사다리 TV'를 통해 고3 수험생을 위한 '2022학년도 대입의 특징과 지원 전략',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 및 지원 전략'을 중점적으로 소개했으며, 5월에는 '2022 학생부 교과전형의 특징과 지원전략'을 안내했다.

8월에 6월 모의평가 이후의 대입전략과 '2022학년도 수시지원전략', '자기소개서 및 면접 준비 방안'을 안내

하고 이후 '고2 학생을 위한 대입 준비 방안' 등을 차례로 제작해 제공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존의 일회적이고 획일적인 입시 정보 제공의 한계를 보완하고, 도내 학생들의 입시 상황에 맞는 맞춤형 핵심 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전북 꿈사다리 TV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진학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고 수험생들이 변화하는 입시 환경 속에서 자신의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학부생 연구 '우수'

유기소재섬유공학전공 복합재료설계연구실, 경쟁력 ↑

전북대학교 유기소재섬유공학전공 복합재료설계연구실(지도교수 김성륜)이 우수한 연구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다.

전북대에 따르면 이 연구실에서 활동하는 최성규 학생(4년)에 이어 김기훈 학생(3년)까지 최근 대전에서 열린 '한국복합재료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연이어 우수 발표 학술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대부분 석·박사 학위과정 대학원생들이 받는 것으로, 학부생이 연이어 수상한 것은 매우 드문 일로 이목을 끌고 있다.

김기훈 학생은 3D 펜을 이용한 더블 퍼플레이션이 유도된 고분자 복합재료 제조에 대한 연구 주제를 발표해 호평을 받았다. 3D 펜을 이용한 필름 공정으로 전도성 고분자 복합재를 구조 제어하고 낮은 함량의 전도성 입자 혼입으로도 우수한 전기 전도도를 나타내는 더블 퍼플레이션 구조의 제조가 가능함을 실험을 통



최성규 학생



김기훈 학생

해 규명한 것이다.

이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성장 동력 중 하나인 3D 프린팅에 적용할 수 있음과 더불어, 소형 가전기기에 대한 관심과 함께 급부상한 대전 방지 소재의 상용화에 기여할 수 있다.

김기훈 학생은 "학부 연구생 신분으로 이렇게 큰 상을 수상하게 돼 너무 기쁘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 재료 및 공정 연구를 통해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자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륜 지도교수는 "한 연구실에서 두 명이 수상하는 것은 드문 일인데 심지어 학부생 신분으로 두 명이 수상했다는 것 역시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대학원생 및 학부생에게 귀감이 되길 바라고 우수한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2021년 '좋은 수업 에세이 경진대회' 대상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한국전문대학교수학술발전협의회에서 전국 전문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좋은 수업 에세이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경진대회는 코로나19의 확산에도 대면개편 수업에 최선을 다하는 교수·학생들의 평가 노력에 힘입어 좋은 수업에 대한 수기를 공모, 우수 수업으로 선정된 교수지의 우수 교수법 확산 및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총 328건의 작품이 접수돼 전국 전문대학 학생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전주비전대학교는 최위생과 이송희 학생이 대상을, 간호학부 1학년 장민경 학생이 장려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뤘다.

대상을 받은 최위생과 이송희 학생은 "어서와, VR 위드 씬은 처음이지? 라는 주제로 처음 접한 VR 기반, 구강해부학 수업에서 학생의 눈높이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의 수업방식으로 인해 변화된 자신을 진솔한 문체로 담아냈다"고 전했다.

"허수아비가 성장하기까지"라는 주제로 참여한 장려상을 받은 장민경 학생은 "우리 대학 학습공모전을 통해 학습법을 공유하고 경진대회에 출전해 상까지 받게 돼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학생 선수를 화이팅... 전북체육고등학교, 협약 체결

전북체육고등학교(교장 박재중)와 인천체육고등학교(교장 신재한)가 학생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등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학교체육시설 예약시스템 개통

체육시설 기본정보 제공... 이용 편의성·예약 과정 투명성 높여

학교 운동장 등 체육시설 이용이 한층 편리해 질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학교체육시설 개방 요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정보와 예약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학교체육시설 예약시스템'을 구축·개통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국민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특정 단체의 장기 사용을 방지하고 실시간 체육시설관리 정보를 제공해 예약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도내 학교체육시설을 쉽게 검색하고 빠르게 예약할 수 있게 됐다.

지역별·학교급별·시설별·날짜별

시설 검색이 가능하며, 회원가입 없이도 본인 인증후 예약 및 예약현황 보기가 가능하다.

또 체육시설 미개방 학교라도 체육 시설에 대한 기본정보는 입력해 지역 주민 또는 도민들이 학교의 시설정보 및 개방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이용 방법은 ▲학교체육시설 예약시스템 홈페이지(<http://fac.jbc.go.kr>)로 바로 접속하거나 ▲개별 학교 홈페이지에서 체육시설예약 메뉴 클릭 후 접속하는 방법 ▲도교육청 홈페이지 하단 관련 사이트 메뉴에서 '학교체육시설 예약홈페이지' 클릭 후 접속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용 예약은 사용일 30일 전부터 가능하며,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용 시간에는 학교별 형편에 맞춰 설정하도록 했다.

특히 특정단체의 장기예약은 주중 두 개 요일로 제한하고, 1인 예약제한(학교별 최대 5건, 1일 1건)을 뒤 보다 많은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학교체육시설 예약시스템 구축으로 체육시설 기본정보와 예약가능 여부, 개방여부 등을 제공함으로써 도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학교체육시설 예약시스템을 개통했다 해서 반드시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장이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개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한옥인력양성사업단, 발전기금 기부

베트남 한옥 수출... 대학·지역의 성과 나누기로

전북대학교 한옥인력양성사업단(단장 남해경)이 최근 알제리에 이어 베트남에도 한옥을 수출, 한류문화 확산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베트남 퀴는 현지의 한옥 건립사업에 효성중공업이 지원하며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그간의 다양한 성과와 기쁨을 대학과 함께 나누기 위해 사업단이 1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대학에 기부했다고 전했다.

그간 고창캠퍼스에서 한옥기능인력양성 사업을 하면서 틈틈이 모은 기금과, 이번 한옥 수출로 얻은 기금을 모아 발전기금을 마련했다.

발전기금은 최근 고창캠퍼스에서 열린 전북대 보자자 워크숍에서 전달됐으며, 이 자리에는 유기상 고창군수도 함께해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

남해경 단장은 "그간 고창캠퍼스가 지역과 대학의 상생을 위한 평생교육 등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 왔고, 이같은 노력이 한옥 수출로까지 이어져 그 의



미를 대학과 나누고 싶었다"며 "고창캠퍼스가 대한민국 한옥 교육 및 수출의 교두보가 돼 한류 문화 확산에 공헌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원 총장은 "이번 발전기금은 지역과 대학의 연대와 공유를 통해 한옥 수출의 성과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고창캠퍼스가 한옥 교육 수출의 메카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지역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